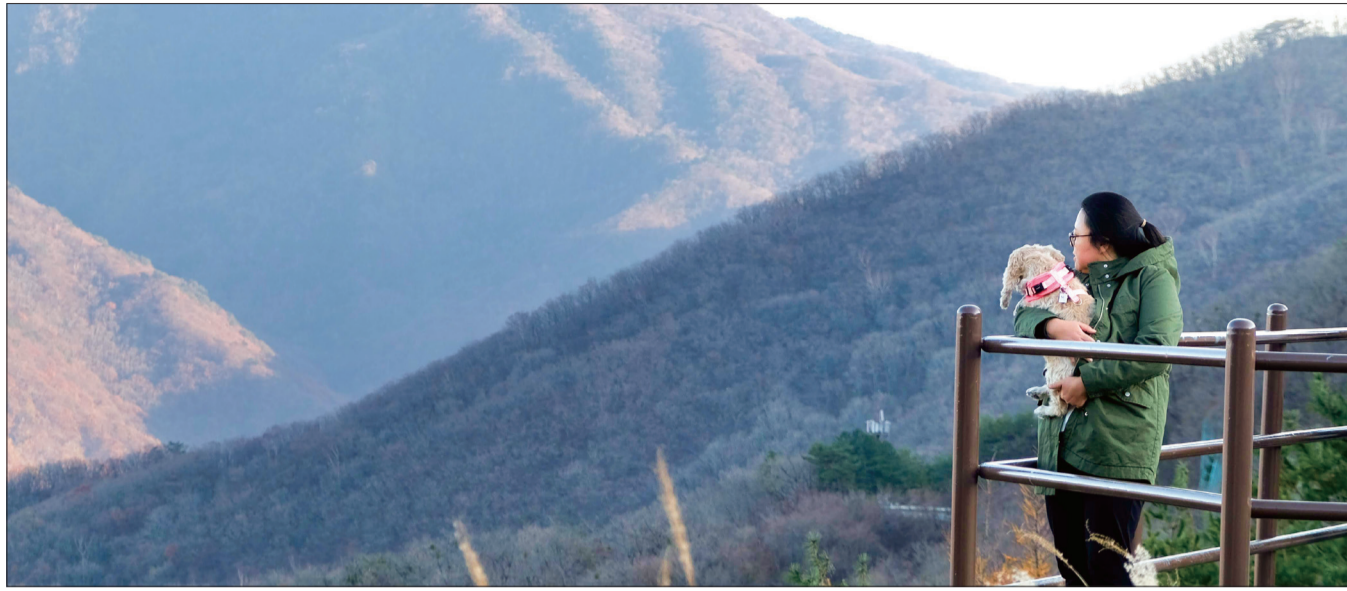


사진부 칼럼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위치한 전망대가 나타난다. 아름다운 지리산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지리산 정상으로 향하기 전 많은 이들의 휴게소이기도 하다. 차로 산악 드라이브를 즐기는 가족들, 몇 시간을 자전거로 올라온 뒤 휴식을 취하는 라이더 무리, 그리고 알록달록한 옷을 갖춰 입은 등산객들.

여기, 또 하나의 가족과 가을의 지리산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다. “너도 지리산 한번 볼래? 어때, 좋지?” 행여나 추울까 꼭 안은 채로 열심히 강아지에게 지리산 풍경을 설명한다. 좋은 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나 같나보다. 가을바람은 쌀쌀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지는 장면이다.

황보현 사진부 차장기자

여론광장

증폭된 분노

감정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잘 다루줘야 한다. 때를 놓치면 내면에서 끓어서 사람을 병든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관계에서 치대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우쳐갈 뿐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극단의 방법만이 존재하는 듯 그냥 내뱉거나 참는다.

감정이란 것이 대개 그러하지만, 특히 분노라는 감정을 다루기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가 정해지고 그 결과는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폭력이 될 수도,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정도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 심하게 병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에 나는 분노란 배출하기로 내뱉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감정을 잘 소화해냈다는 의미가 아니다. 병들어 있는 내면이 더는 감정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끓어서 선택하는 가장 게으른 방법으로서의 배출이다. 정확히 말하면 분노의 배출이 아니라 분노 찌꺼기의 배출일 것이다. 그 방법은 자신이 의명의 누군가가 되어 배출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을 볼 일이 없기에, 그 사람을 나를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억눌렀던 감정들이

섞여 발현되는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나에게 가해지는 해가 없어서 쏟아붓는 듯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상식과 일반이라고 말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을 욕할 자격이 주어진다. 논리적인 비약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노인(憤怒人)들이 함께 한다면 그 물결은 누가 말려도 잡지 못할 정도로 거세진다.

이때 분노는 순식간에 증폭되고 상대를 향한 인신공격적인 조롱은 폭격처럼 가해진다. 인터넷에서만 그러할까.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분노로 탈바꿈해서 터지는 순간들, 나에게 위해를 가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복종을 요구하는 말투들. 특정 집단을 묘사하며 치는 드립들. 본래의 몸보다 증폭된 분노가 익명 너머의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순간들을 그동안 목격해왔다.

한번 물결을 타면 견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노는 과연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는 감정의 끝까지 내려가 그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그 과정은 상처를 동반하고 외면하고 싶을 수 있으나 내 안에서 발현된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나의 감정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의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이다. 소소한

감정들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고 있기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관계없는 상대에게 분노로 분출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분노가 쌓이고 그 공간이 분노라는 공기로 가득차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슬픔과 분노가 증폭되어 여러 문제를 낳는 또 다른 이유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사회가 당연한 나의 모습조차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병든 사회에서는 기쁘지 않거나 밝지 않은 감정들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겨진다. 슬픔, 분노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경직되는 분위기가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하고 쌓아 두는데 일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사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낙관적으로 사회인식 개선을 기대하며 끝내고 싶진 않다. 분노를 배출해 버릴지 해소할지의 문제는 사회문제보다는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처럼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어떠한 논리도, 잣대도 필요하지 않다. 묵혀둔 감정을 꺼내어 직면하는 것, 어떠한 가치의 개입도 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김정현(사회·17)

Z의 시선

AI 현실을 직면하라

한 언론사 인턴 면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AI 기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었다. 인간이 제일 궁금한 건 무엇일까 매일 생각해야 하는 저널리즘 영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온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 답했다. 언론사에서도 AI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흔히 우리 세대의 경쟁 상대는 인간이 아닌 AI라고 말한다.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문장은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AI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명확한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익숙지 않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여한 메리디스 부르사드 뉴욕대 교수는 AI 그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AI 뒤에 있는 사람, AI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흔히 AI를 들으면 터미네이터 혹은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에 나온 민머리의 매끈한 인간을 닮은 기계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상상에 불과하다. AI는 컴퓨터 과학의 한 종류일 뿐이다. 상상을 포괄하는 광의의 AI가 아닌 협의의 AI는 수학이다. 숫자를 빠르게 처리하고 경험을 축적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더 빠른 처리를 도모한다. 진짜 문제는 AI 자체가 아닌 기술맹신주의(Techno-chauvinism)이다.

AI 기술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자. 앨런 튜링, 마빈 윈스키, 존 폰 노이만, 래리 페이지. 이들은 모두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백인 남성 수학자다. 그들의 동질성은 하나의 시선으로 정의되어 편향성으로 나타나 무의식적으로 기술에 내재된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 자체가 편견을 갖고 있고 편견은 우리의 사고를 침투한다. 실제로 구글에서 흑인여성을 검색하면 백인여성과는 달

리 포르노로 가득 찬 검색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AI 시대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그 뒤에 있는 편견을 지적하고 그 알고리즘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도하는 것이다.

브루사드 교수가 지적한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AI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할수록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소수의 AI 개발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명확하게 AI 현실을 직면해야한다. 한국 사회도 AI 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톨링, 키오스크 등 인간의 노동력을 기술이 대체하면서 AI에 대한 두려움은 더해간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것은 기술이 초래할 양극화다.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AI를 만드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서현정(커미·15)

상록탐

독자와 함께하는 학보가 되길 바라며



이수연
취재부 차장

“존재감 있는 교내 언론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도 어김없이 밤을 지새우며 1593호를 마감했다.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인턴 기자들과 함께했다는 점, 그리고 내게 또 다른 책임의 무게가 지어졌다는 점이다. 편집국장이란 직책을 바로 코앞에 둔 지금, 학보를 다시 되돌아왔다.

처음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다는 내 말에 친구는 “이대학보? 학보가 뭔데?”라고 되물었다. 당시는 학보를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제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학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묻던 사람부터 학보를 소개했을 때 “교내신문사가 있었구나...”라며 말을 흐리던 사람까지. 학교 홈페이지 소식을 이대학보 기사로 잘못 알고 있던 사람도 만났다.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새로운 신문이 나오고 학내 커뮤니티에 들어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대학보’, ‘학보’를 검색했을 때 어떠한 글도 나오지 않았던 일. 기사에 대한 이런 저런 평가보다 무관심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최근 패널단 ‘학보 메이트’에게 학보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다.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를 알려야 한다’, ‘SNS 계정도 독자와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대학보에 관심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까지 읽다 보면 “독자들한테서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대학보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소통’. 흔히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학자 데니스 맥퀘일은 커뮤니케이션을 ‘발화자, 수신자 사이 의미의 주고받음’이라 정의한다. 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다. 다시 말해 신문은 독자와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힘은 신문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학보 구성원들은 이를 계속해서 인식해왔고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실제 크진 않지만, 힘이 되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 학기에는 배포 부수가 2000부 이상 증가했고, SNS 팔로워수도 늘었다. 학보 메이트도 생겨 독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독자에게 다가갈 길은 멀다. 신문은 독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학보를 설명해야하고 학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발로 뛰어 야 한다.

이제 내겐 1년이 주어졌다. 독자와 더 가까이하며 새로운 신문을 만들 기회, 함께할 사람들도 있다. 다음 이대학보는 지금과는 다른,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이대학보는 독자들의 따뜻한 응원과 냉철한 일침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앞서, 두려움도 앞서지만 기대감도 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았지만, 꾸준히 도전했고 성장했다.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훗날 이화인에게 이대학보가 친숙한 존재가 되는 날을 상상해본다. 종이신문을 읽든 손 안에 휴대전화로 보든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말이다.

- A : 너 오늘 이대학보 봤어?
- B : 당연하지. 눈 뜨자마자 봤어.
- C : 월요일마다 어떤 기사가 올라올지 기대대!
- A : 맞아. 학보 기자들한테 잘 봤다고 말해주자.

앞으로 만들어갈 이대학보가 독자들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란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금 학보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그래, 잘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금주의 책

「앨런 튜링, 지능에 관하여」

앨런 튜링 지음, 서울 : HB Press : 어떤책, 2019



이 책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의 주요 논문과 강연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에서 현대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머신 러닝, 신경망, 알고리즘 개념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20세기 말이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보편성을 얻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튜링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공상처럼 여겨졌던 그의 발상들이 현실로 구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튜링은 언제나 기계가 인간과 경쟁하는 시대가 온다면 체스 같은 매우 추상적인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가 사고와 학습이 가능하게 되면 머지않아 인간의 하찮은 능력을 뛰어넘고 어느 단계가 되면 기계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

하는 기계라는 이 새로운 위험은 훨씬 가까이 와 있고 근심거리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AI의 시작이 궁금한 이화인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중앙도서관 사서 박순진 -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 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006.3 T846엘]